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5월

선교편지 제 43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띠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마치 오랜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를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는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수감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동하는 상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깥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 졌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한 여성 재소자는 10여년 전 마띠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교도소 주변에는 제대로 된 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는 거의 볼 수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소리와 함께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소리들이 바깥에서 들려 오는데, 많은 변화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10여년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제가 이곳에 정착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여 전만 하더라도 도심지에는 에어컨의 유무에 따른 두 종류의 택시가 운행 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차량은 요금이 저렴해서 좋기는 좋은데, 택시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 상태가 아주 험악합니다. 비가 올 때 에어컨이 없는 택시를 타게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운 열기와 차 안의 오묘한 냄새로 인하여 비가 쏟아져 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의 창문을 닫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목적지로 가야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진흙탕을 질주할 때면, 차 밑바닥으로부터 물이 차 오르기 때문에 발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히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억이 담긴 에어컨 없는 차량이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말끔한 택시들만이 다니고 있습니다.



디고스로 가는 길

또한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마띠 고등학교로 가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약 2년전만 하더라도 약 50 mile 정도밖에 안되는 이 굴곡이 많은 도로를 지나려면, 약 3시간 정도를 예상 해야하는 쉽지 않은 구간 이었습니다. 2차선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비포장 도로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2차선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바뀌는 예측 불허의 위험한 도로 였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양보없이 훌 먼지를 일으키며 무작정 질주하는 버스, 화물 트럭, 일반 차량, 지프니, 트라이 시클, 오토바이, 자전거가 동시에 다니고 이와 더불어 길을 가로 지르는 사람, 소, 개,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정말 많이 정비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도로를 지나려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2시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도로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변화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마띠 고등학교'입니다. 2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은 학교라고 부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겨우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나뭇잎으로 덮인 지붕과 가느다란 기둥이 전부 이었습니다. 교실을 임의로 나누었지만, 교실벽이 없는 까닭에 400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열린 학교 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을 위한 별도의 교무실도 없어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들고 다니며 이곳, 저곳에서 사무를 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하여, 작년 8월부터 이 마띠 고등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약 10개월간의 공사로 학교 교실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와 페인트 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립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학교가 전혀 모르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학교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 (고전 15:58)**



교실벽 공사 전



교실벽 공사 진행 중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동안 이 낙후된 마띠 학교 소식과 함께 저희 사역에 대한 소식이 지역 신문과 라디오 뿐만 아니라 현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띠 학교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는 매우 신선한 뉴스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급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아닌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의해서 지역 학교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3월경 이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뜬금없이 마띠 학교의 부족한 시설을 세워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약 두 달만에 교실 1개, 화장실 1개 및 미니 체육관 (Mini Gym)이라고 불리우는 용도가 불분명한 시설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약 3만불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마띠 고등학교에 현대식 시설물이 처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 및 용도가 불분명한 가운데 진행 되었지만, 학교 입장으로는 전혀 뜻 밖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미처 할 수 없는 일들이 외국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학교 발전이 많이 앞당겨 졌다고 저희에게 무척 감사해 합니다.

마침내 두 달여만에 교실, 화장실, 그리고 미니 체육관 공사가 끝나고, 페인트 칠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에 따라 세워진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세워진 시설물에 대한 적합한 용도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했던 교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미 10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교실은 다른 용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구동성으로 이 새 교실을 '도서실'로 사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일 교회에서 마띠 고등학교로 보내 주는 책들이 잘 보관 및 사용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실'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미니 체육관과 신축 교실 (뒤)

마띠 고등학교에는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방문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학교 내에 많은 인원이 모일 만한 들판은 있지만,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들판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안이 아닌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공공 시설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의 방문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미니 체육관을 아주 급하게 세워주셔서 집회 장소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이곳에 도착하는 첫날, 마띠 학교에서 준비한 조출한 환영식이 있을 예정인데, 새로 건축된 미니 체육관의 첫번 공식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학교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사용을 위해서 집에 다녀 오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내 준다고 합니다. 400여명이 재학하는 마띠 고등학교에 단 한개의 화장실만이 있을 뿐이어서, 예일 교회 단

기 선교팀의 방문을 앞두고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것도 저의 큰 숙제 중의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만큼은 선교팀이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만든 깨끗한 현대식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선교의 현장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스 1:1)**

 이곳의 학교는 3월말에 졸업식이 있고, 4, 5월을 방학으로 보내고 6월 첫주에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마띠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저희 토요 학교는 더욱 더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를 위해서 두 분의 마띠 학교 선생님, 마띠 교회 목사님 내외, 그리고 몇몇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더욱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영화도 보고, 찬양도 같이 하고, 간식과 음식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 오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줍어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들의 자세한 배경을 짐작 하기가 어렵지만, 학생들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드라마 가운데 비운의 주인공들처럼 보여져서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가 많습니다.

마띠 학교가 있는 디고스는 복잡한 작은 중심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벼 농사를 위한 논과 바나나, 망고, 사탕수수등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농사와 관련한 일들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는 주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거나, 소위 현대판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일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확인과 보증이 없으면, 일반 소작농들이 세들어 사는 집에는 '전기' 마저도 사용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전기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수준에 비하여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에 소작농의 굴레를 벗어 나기가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이곳 마띠 고등학교에는 약 400여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지만, 각 학년별로 학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학년의 학생들은 많으나, 고학년 졸업반의 학생은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특색입니다. 지난 3월말 졸업식에도 50여명만이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복학을 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14살의 학생과 19살의 학생이 동일한 학년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에도 점심 시간이 되면 학교 내에 있는 '매점'이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집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팔기도 하지만, 특별히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식인 쌀밥과 반찬을 파는 곳입니다. 비닐 봉지에 학생들이 먹을 만한 주먹 만한 크기의 밥과 반찬을 담아서 각각 약 15 센트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심 식사마저도 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창피함으로 인해 자리를 달리하여 삶은 옥수수나 고구마등과 같은 것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욱 더 암울하게 보이는 것은 찢겨진 가족 관계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알면 알 수록 왜 이렇게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나 친척의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많은지 놀랄 지경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교 주변에는 기숙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숙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설 보딩하우스 (Boarding House)'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5 정도를 지불하고 열악한 환경의 방 한칸에서 6 ~ 10명의 어린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친척집이라도 머물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 보딩하우스에서 가족들과 떨어진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기가 힘든데,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삶과 마음이 어떠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매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이렇게 연약한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의 부족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답답함이 많습니다. 저들이 동감하지 못하는 입술 끝의 번지르한 사랑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랑의 수고가 전달 되어,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전 1:3)**

기도 요청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기관 설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